

전남도의회, 졸속 조례 남발... 상임위 계류·폐기 잇따라

22개 시·군에 민원상담소 설치안 '도의원 홍보용에 예산 투입' 지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실효성 논란...제·개정 개선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례 제정에 나섰다 보류하는가 하면, 실적쌓기를 염두에 두고 조례 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소요 예산 등 조례 제정의 적법성을 살피는 도의회 정책연구부서의 소극적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민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도의회 시·군 지역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 형태로 제정,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도의회 입법연구팀 검토 의견과 도의원의 홍보용 민원 상담소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 등으로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22명

이나 되는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61명 중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전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도 지난달 열린 제 368회 임시회에서 실효성이 중 지원 등의 논란이 일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전남도 주민등록을 둔 의무복무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국방부가 이미 실손의료비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10명 중 7명의 의원이 조례 제정에 찬

성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류된 점을 감안하면, 입법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데다 인정에 끌려 동료 의원의 조례안에 서명한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비판마저 나온다.

도의회는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철회하는 대신, 자동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정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 조례'도 특정인에 대한 기념일 제정 사례가 없는 점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조례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반영되는 점을 고려 조례 명칭과 문구를 바꾸는 형태

위주의 '조례 제·개정'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제 36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 형태로 개정된 '전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게 전부지만 25명의 의원이 앞다뮬 발의안에 서명해 실적 쌓기를 위한 '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관 의안 자문과 입법지원업무 등을 맡겨 입법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당부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보성군민과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오전 보성군청에서 열린 보성군민과 함께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과 즉문즉답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지사 "보성 열선루 복원 등 현안 적극 지원"

첫 도민과의 대화...올 상반기 22개 시·군서 진행

"전남 경제력은 이제 전국 광역자치체 가운데 중위권인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계 제일 산업단지, 세계 최고 선박 건조 기술, 세계 7대 우주강국 기반, 글로벌 뷰티 남해안 등의 세계 일류 자원들이 있습니다. 전남이 세계로 뚫리며 대도약에 나서고 그 성과가 전남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오전 보성군청 대화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민선 7·8기 도정 성과를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8.2GW 해상 풍력사업, 전남 국립과과대학, 초강력 레이저연구 시설,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단지 등 10대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보성군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열선루 복원 사업'과 관련 15억 원 도비 지원을 요청하자 김 지사는 "그 정도의 예산은 부족한 것 같으니 관광체육국장이 보성군과 잘 협의해서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박람회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주요호 생태습지공원 조성 사업'의 전남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보성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며 도정 보고를 마무리한 김 지사는 보성군민과의 대화도 직접 주재했다. 군민들은 '미력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 '이열대 과수농장 유통망 확보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보성군 이전 협

조', '문덕면 국도 18호선 직선화 요청' 등을 김 지사에게 당부했으며, 전남도의 담당 국장들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예산이 비현실적이면 증액하도록 조정하는 등 군민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

보성까지의 경전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순천 도심 구간 우회로 인해 공사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우선 광주-보성 구간이라도 공사에 들어가도록 해 지역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복 보성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의 빈집 활용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제안과 관련 "방치돼 있는 빈집은 관련 법을 신속히 만들어 전남도와 시·군이 대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보성·장흥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22개 시·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사회적 목적 실현 법인·회사 대상...28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올해 모집은 상·하반기로 나눠 두차례 진행되며, 상반기 모집기간은 15일부터 28일까지다.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이 끝나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광주시는 21일과 22일 두 차례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공모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또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 시 홈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9개 업체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128개 기업에 363명의 인건비 54억, 55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대별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할을 갖춘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공모

비영리단체 대상 28일까지...인식개선·문화예술 등 지원

광주시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인식개선 ▲이중언어 환경 조성 ▲문화예술 분야 ▲이주민 리더십 함양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에 총 28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광주시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peh093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의

약기교육 ▲이주여성 뷰티힐링관리사 양성과정 ▲다름을 인정하여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함께하는 시선, 소소한 행복찾기 등 4개 사업을 지원했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는 다문화 가족이 능동적인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발성·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 당당하게 사회와 함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다문화가족은 8095가구 2만 4332명으로, 광주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이방인

이 기원 소하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